

研究論文

《한성신보》 소재
〈몽유역대제왕연
(夢遊歷代帝王宴)〉 연구

이본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후남

전주대학교 강사, 고전소설 전공

alfn19@naver.com

- I. 머리말
- II. 이본적 특징
- III. 연재 의도 및 이본적 가치
- IV. 맺음말

I. 머리말

〈몽유역대제왕연(夢遊歷代帝王宴)〉은 《한성신보(漢城新報)》¹⁾ 잡보(雜報)란에 실린 활자본 고전소설이다. 1896년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작자 미상이다. 이 작품은 ‘입몽-몽중-각몽’의 몽유록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산동 땅에 사는 성허라는 선비가 금화사에서 꿈 꾸는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한·당·송·명 창업지주의 연회’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금화사몽유록〉과²⁾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한성신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일정 부분 축적되었다. 초창기 연구는 관련 사료를 발굴하여 창간 배경 및 운용과정을 밝히는 한편으로 신문사 및 연재물의 성격을 규정하는³⁾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한성신보》의 지면 분류항목으로 등장한 ‘소설’란을 주목하거나⁴⁾, 소재된 소설 18편을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⁵⁾ 하였다. 그러다가 원본 상태의

- 1) 《한성신보》는 1895년 구한말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일본 외무성의 자금을 지원 받아 창간한 신문이다. 국문과 국한문 그리고 일본을 함께 사용하는 격일간 신문으로 출발하여 1897년 10월 하순부터 국문(국한문 포함)과 일본 신문을 분리하여 각각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10월 1일부터는 국문과 일본 신문을 일간으로 바꾸어 발행하다가 1906년 7월 31일 이후 폐간되었다. 총 39편의 단행 서사물이 실려 있다(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2, 소명출판, 2008, 12-20쪽). 〈몽유역대제왕연〉의 인용문은 김영민의 책에 실린 교주(466-493쪽)를 활용하되, 필자가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교정기호를 추가하였다. 책의 쪽수 대신 연재 횟수를 제시하겠다.
- 2) 이 글에서는 한문본과 국문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 명칭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금화사몽유록〉을 대표 제명으로 사용하겠다. 다만 특정 이본을 지칭할 때는 각각의 제명을 그대로 표기하며, 〈몽유역대제왕연〉의 이본적 명칭은 ‘한성신보본’으로 한다.
- 3) 최준, 「한성신보의 사명과 그 역할-일본외무성의 기관진의 선구」, 『관훈저널』(관훈클럽, 1961); 한원영, 「한국 개화기 신문 한성신보에 연재된 소설고」,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7); 채백,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7(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0); 권영민, 「《한성신보(漢城新報)》와 최초의 신문 연재소설」, 『문학사상』 제26권 6호(문학사상사, 1997); 박용규, 「구한말 일본의 침략적 언론활동-《한성신보》(1895-1906)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43(한국언론학회, 1998).
- 4) 김재영, 「근대개몽기 소설 개념의 변화-두 가지 외래적 원천」, 『현대문학의 연구』 22(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한성신보》의 소설란은 서구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통용되고 있는 소설 개념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흥미 중심의 읽을거리’ 정도의 의미라는 점을 밝혔다.
- 5)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한성신보》의 18편의 서사물을 시부류소설, 회음소설, 회작소설, 번역·번안소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8편 모두 소설로 묶기 어려우며, 논문에서 말하는 ‘소설’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

불량으로 인해 미뤄져왔던 지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하면 서⁶⁾ 다각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조부인전>과 같은 단일 작품에 대한 연구나⁷⁾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⁸⁾, 전계(傳系) 서사물⁹⁾, 야담이 활용된 작품들¹⁰⁾,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¹¹⁾을 대상으로 한 주제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성신보》에 소재된 고전소설의 실상을 파악하고, 향유 배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¹²⁾

<몽유역대제왕연>이라는 단일 작품과 관련해서는 권영민이 “전통적인 몽유록의 형식을 지닌”¹³⁾ 작품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혜란이 “<금화사몽유록>의 수록”이라고¹⁴⁾ 각주에서 간단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김준형이 <금화사몽유록>의 완역이며, 신문사의 주의나 주장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¹⁵⁾ 지적하였다. 결국 선행 연구자들은 몽유록 형식이라는 점과 <금화사몽유록>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긴 하였으나, 계열 분류의 문제나 이본적 특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몽유역대제왕연>과 <금화사몽유록>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같은 계열 내 타 이본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몽유역대제왕연>의 이본적 특징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한성신보》라는 매체와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6) 김영민,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0(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7)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 『고전문학연구』 45(한국고전문학회, 2014).
- 8)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한국근대학회, 2007).
- 9)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전계(傳系) 서사물의 역사적 성격, 『비평문학』 39(한국비평학회, 2011).
- 10)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야담계 기사(記事)의 서술 시가와 인물 형상, 『우리文學研究』 38(우리문화회, 2013); 김준형,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한성신보』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37(한국고소설학회, 2014); 김준형, 「근대 전환기 야담을 보는 시각-『한성신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9(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a).
- 11) 강현조, 「근대초기신문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천 양상 연구-『한성신보』와 『제국신문』의 공통 계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12) 김준형, 「『한성신보』 수재 고전소설의 실상과 향유 양상, 『고전문학연구』 48(한국고전문학회, 2015b).
- 13) 권영민, 앞의 논문, 143쪽.
- 14) 조혜란, 앞의 논문, 75쪽 각주 29.
- 15) 김준형, 앞의 논문(2015b), 141-142쪽.

연관하여 작품에 신문사 측의 의식이 반영되었는지, 수록자 혹은 편집진의 개작이 첨가되었는지 살핌으로써 연재 목적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몽유역대제왕연〉이라는 특정 이본이 갖는 가치를 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본적 특징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본 결과 〈몽유역대제왕연〉은 〈금화사몽유록〉의 전체 서사를 보유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금화사몽유록〉은 임치균이 〈왕회전〉 후기에 나오는 ‘송정기묘연간(崇禎己卯年間, 1639)’을 창작 시기로 밝힌 이래¹⁶⁾, 후속 연구자들도 대체로 17세기에 창작되었다는 데 동의한¹⁷⁾ 작품이다. 또 한문본 59종과 한글본 31종, 총 90종의 이본을 보유하고 있는 몽유록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작품인 동시에 20세기 초까지 활자본으로 향유되면서 인기를 누린 작품이기도 하다.

두 작품 간의 이본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본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몽유역대제왕연〉이 한글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 작품이 연재되던 1800년대에 〈금화사몽유록〉의 수많은 국문필사본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국문필사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금화사몽유록〉 국문본 31종 중 소장처가 불분명한 자료와 몇몇 개인 소장본을 제외한 총 20종의 현황을 소개하고 계열을 상정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몽유역대제왕연〉은 ‘금화사기’ 계열의 이본으로 확정할 수 있다. ‘금화사기’ 계열의 서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열의 두드러진 특징을¹⁸⁾

16) 임치균, 『『王會傳』 연구』,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7) 정용수, 『『金山寺夢遊錄』계의 창작배경과 주제의식』, 『고소설 연구』 10(한국고소설학회, 2000);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보고사, 2005).

18) 『금화사기』 계열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서사는 다음 일곱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몽유역대제왕연〉 역시 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① 입몽 장면에서 성생이 피곤하여 잠깐 잠든 사이 4개의 황금교자가 들어오면서 창업연이 시작된다. ② 송황이 한황에게 약법삼장에 대해 묻고, 한황이 덕정을 베푼 까닭을 이야기한다. ③ 한당송명 네 황제가 신하들의 공을 이야기한 뒤, 중흥주 초청으로 이어진다. ④ 중흥주에 대한 의견 대립 없이 초청이 이루어진다. ⑤ 제왕들이 돌아가며 폐사를 이야기한 뒤 명태조가 역대 제왕의 기상과 득실을 논평한다. ⑥ 원태조의 침입에 송황이 화전을 제안하자, 진시황이 화를 내고 한무제와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⑦ 각몽 후 몽중사가 역력하여 기록한다고 되어 있고, 후일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정녀, 「〈金華寺夢遊錄〉 국문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화사기’ 계열의 이본에는 고려대본, 정명기본, 유타일본 총 3종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명기본 <금화스몽등기>(1책 20면)와 유타일본 <금화사몽류록>(1책)은 개인 소장본이고 낙질이다.¹⁹⁾ 따라서 고려대본인 <금화스기>(1책 55면)²⁰⁾ 주 비교 대상으로 삼아 한성신보본 <몽유역대제왕연>의 이본적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 밖에 다른 계열의 국문본 및 활자본, 한문본 등도 보조 텍스트로 활용하겠다.

1. 충실한 한글 번역 및 오자(誤字)의 최소화

이본적 특징은 어구상과 서사 전개상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어구상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작품 도입부의 주인공 소개 및 입몽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나오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이본의 도입부는 서사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서술 순서나 어구 표현 등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세 이본이 같은 계열의 이본임에는 분명하지만,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 이본은 저본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성신보본의 어구상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한성신보본은 고려대본에 비해 한글 번역이 충실히 이루어진 이본이다. 한문소설을 번역한 대부분의 한글소설이 그렇듯이, 고려대본은 한문투식과 직역투식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 문식이

본의 유통 양상과 수용 층위], 『우리文學研究』 48(우리문화회, 2013), 34-36쪽.

19) 정명기본과 유타일본은 개인 소장본인 관계로 실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명기본은 제갈량이 법당으로 들어서려는 진시황을 막아서는 대목에서 필자가 중단됨으로써 상당히 초반부 서사만 보유한 낙질본이다(위의 논문, 33-34쪽). 필자가 김정녀의 논문에 인용된 정명기본의 몇몇 대목을 한성신보본과 비교해보니, 두 이본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타일본은 그 전모가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으며, 선행연구(권우행, 『〈금산사기〉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0쪽)에서 낙질이라는 것과 유타일 한문본의 번역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분명한 것은 제갈량이 문무제신들을 포획하는 대목에서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정명기본보다 분량이 조금 더 많은 이본이라는 점이다.

20) 고려대본 <금화스기>는 『拾遺』(C15 A19, 1책 176면)라는 책에 <츄풍감별곡> 외 다른 성격의 여러 작품들과 합철되어 있는데, 이 책과 <금화스기>에 별도의 필사기가 붙어 있지 않아 필사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띄어쓰기·문장부호·교정기호(| 오자 교정, { } 불필요 글자, < > 탈자 입력, □관독 불가) 필자가 추가하였다.

표1- 고려대본, 정명기본, 한성신보본의 도입부

고려대본 1-3면	정명기본 1-4면 ²¹⁾	한성신보본 1회
화설 지정말의 혼 섣비 잇 스니 성은 성이요 명은 허 (탄)이요 조는 조탄이라 산 동문스로 …… 흘런 청[경필 소리 요 량하야 멀이로부터 점점 갓 가오더니 아이요 텃군만마 지제성이 산천을 움직이며 금고명나 소리 진천하며 괴 치금[검극이며 아장표특[독 이 전츠후응하며 황금교자 제제횡진하며 함오 정정엄 속하며 드러오니	지정말의 성상적 이시니 명 은 허요 조는 조탄이니 산 동유시라 …… 문득 청[경필 소리 먼 디로부터 점점 갓갓더니 텃 군만마 싸흘 움직이고 금고 화각이 한[하남의 진동하며 정괴와 검극은 압히 나렬하 고 애[아장호독은 뒤희 분 운하더니 가운데 네 황금교 자 차례로 드러오니	산동 싸히 혼 섣비 잇스니 성은 성이요 명은 허요 조 는 조탄이니 …… 흘런 드러니 경필하는 소리 먼 디로부터 점점 갓 가오며 문 벗게 천병만마 싸흘 움직여 오고 금고 소 리 하날에 진동하며 정괴와 검극이 전후에 나렬한 가온 디 황금교자 사쌍이 차례로 하더라

없는 독자가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표1에서도 고려대본은 병부(兵符)와 깃발을 뜻하는 ‘아장표독(牙獐豹纛)’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명기본 역시 ‘아장호독(牙獐虎纛)’이라는 일맥상통한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한성신보본에만 이러한 용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세 이본 모두 ‘경필(警驛)’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한글로 풀어 쓸 때 오히려 번다한 느낌이 들기에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고려대본은 ‘요량(噭噭)’이나 ‘천군만마지제성(千軍萬馬之諸聲)’ 등 유독 한문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려대본은 한문 음을 그대로 적고 한글 조사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한성신보본은 한문을 최대한 풀어서 번역한 흔적이 엿보인다. 물론, 한성신보본 역시 ‘천지(千載)’, ‘팔황(八荒)’, ‘스희(四海)’ 등 한문 문투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글로 푸는 데서 오는 번다함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21) 김정녀, 앞의 논문, 35쪽 각주 44, 25쪽 각주 21 재인용. 필자가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교정기호를 추가하였다.

표2- 고려대본과 한성신보본의 어구 비교

고려대본	한성신보본
천지가회(4면)	천지에 아람다이 모임(2회)
츄호을 불범하고 악법승증하야스니(8면)	가을 터력만치도 범하지 아니하고 법 삼장을 언약하였스니(2회)
영을 버히고 항을 각구로 쳐(9면)	진노리를 제하며 항우를 멀히고(2회)
병탄팔황하고 위진스히하였스니(15면)	팔황을 병탄하니 위엄이 스희에 쟈진지라(7회)
이주를 삼크고 육국을 멀혀야스니(15면)	두 주나라를 삼크고 여섯 나라를 멀혀야스니(7회)
연 제 나라 누리미(33면)	그러하나 데는 나라를 누리고(13회)
룡이 운우를 어더 변화무상이라 제지도량 가이 더브러 비히리오(34면)	용이 구름과 비를 어드미 변화 무궁흔는 데의 도량을 비호 만하나(14회)
득인자는 흥하고 실인자는 망이라(41면)	사툼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툼을 잃는 자는 망하나(16회)

둘째, 한성신보본은 고려대본에 비해 오자(誤字)가 적은 이본이다. 고려대본은 단순 필사 오기가 많아 교정한 흔적이 자주 눈에 띈다. 심지어 3-4줄 정도를 밀려서 잘못 필사해 고친 흔적이 있는데, 필사 오기를 교정했다라도 완벽을 기하지 못해 혼동을 부르기도 한다. 또 문맥을 잘못 이해하여 한 사람을 평하는 것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 평가거나²²⁾, 대화의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아 대화가 제대로 끝맺음되지 못하고 서술형이 되어버리는²³⁾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오류는 작은 부분이지만 한성신보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다. 물론 고려대본은 필사본 이기에 오자가 더 많을 수 있지만, 한성신보본은 활자본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오식(誤植)이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는 ‘금화사기’ 계열 국문본이 강남대본 계열의 한문본을 번역 하였고, 고려대본은 강남대본 계열 중에서도 한중연본 <금화사기(金華寺記)>(1책 23면, <운영전(雲英傳)>과 합철)를 모본으로 삼았다고²⁴⁾ 추정하였다. 이에 한성신보본과 한중연본 <금화사기>를 대조해보았으나, 직접

22) 고려대본 25면. 육손은 용병이 방불하고 양저는 지모가 손오의 버금이요/한성신보본 11회. 육손은 용병히미 낭저와 방불하고 지모는 손오에 버금 짝이요

23) 고려대본 14면. 왕희지를 불너 왕 크게 그의 씨 문 밧게 세위스니 그 방의 왕 ‘중흥지키는 동누로 가고 빅업즈는 서루로 가고 창업지주가 아닌 주 가이 법당의 오르지 못히리라’ 하였더라/한성신보본 7회. 공명이 이에 왕희지를 불너 그에 크게 씨 문 밧게 세우니 그 글에 하였스되 ‘중흥흔 즈는 동편누로 가고, 빅업을 일운 즈는 서편우(누)로 가고, 창업흔 임군이 아닌 즉 법당에 드러오지 말나’ 하였더라

24) 김정녀, 앞의 논문, 51-55쪽. 고려대본은 서두를 제외하고는 한중연본 <金華寺記>의 축자역이며, 정명기본도 마찬가지로의 번역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적인 번역 대본이라 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한성신보본과 고려대본은 서로 다른 한문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성신보시는 ‘금화사기’ 계열의 서사를 지닌 한문본을 택하되 충실한 한글 번역에 역점을 두고, 오자를 최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성신보사에서 ‘금화사기’ 계열의 이본을 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편집진이 구득 가능한 이본이 있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구독자 수가 중요시되는 신문 매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이본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성신보본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한문 소양이 부족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만한 이본이며, 여러 독자가 접근하기 쉬운 이본이라 하겠다.

2. 온전한 서사와 이릉(李陵)에 관한 서술 보유

한성신보본의 서사 전개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한성신보본은 고려대본에 비해 중심 서사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선본(善本)이다. 한성신보본에는 미세한 서사 결락이 3군데 있고, 고려대본은 상당한 분량의 서사 공백이 1군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성신보본이 선본임을 입증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성신보본은 한·당·송 세 황제의 공신 포양이 결락된 채, 곧바로 명태조의 공신 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⁵⁾

한황 왕 “과인이 더러운 덕과 공으로 엇지 감히 삼디를 바라리오 한나라 집 스빅년
 괴업을 창기힐 즈는 다 군신의 공이요 과인의 능흐미 아니라 √” √ 인흐야 명황의
 군신을 물은디 답왈

(한성신보본 3-4회)

이 부분은 3회에서 4회로 넘어가면서 결락되었기에 자칫하면 신문사 측에서 지면을 전략적으로 할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약한 것처럼

25) 이와 관련하여 김준형(앞의 논문, 2015b, 88쪽)은 “한고조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만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성신보본 13회에 나오는 “명황이 왕 좌중에 모든 데의 의향이 듯기를 원한다 하니 맛당이 권견되로 말하러니와 문져 기상을 삶힌 후 시비를 의논하리라” 대목이 기존에 소개된 〈금화사몽유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성신보본과 같은 계열인 고려대본에는 이 대목이 축약되어 나타난다(33면. 연 제 왕 “모뎨져 기상을 살피고 뒤의 시비를 의논하리라”). 이는 김준형이 계열 구분 없이 〈금화사몽유록〉의 일부 한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만 비교 대본으로 삼았기에 발생한 오류이다. 이런 점에서 “위계를 정하는 대목 등에서는 다른 이본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각주 40)는 지적 역시 옳지 않다.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한성신보사는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개작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사를 축약하거나 첨가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본이 된 한문본에 본래부터 이 대목이 없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결락은 다른 이본을 보지 않은 독자라면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송나라 조보(趙普)가, 제갈량이 군신들을 포폄할 적임자로 선출된 데 반대하는 부분이 결락되었다. 한·당·송·명의 창업주들은 장량의 제의로 군신들의 반열을 나누기로 하는데, 명태조가 제갈량을 추천한다. 그러자 조보가 ‘제갈량은 나라를 통일한 공이 없다’면서²⁶⁾ 이에 대해 반발한다. 한성신보본은 이러한 조보의 말이 결락된 채, 송태조가 조보를 꾸짖고 제갈량을 치켜세우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명황이 골으되 “…… 전에 드른 즉 서촉 제갈량이 가슴에 경천위디지지를 감초고 비에 안팡경국지모를 품었다 하니 만일 그 스통이 아니면 가히 능히 맛기지 못허리라”
 √ 송황이 골으되 “지모는 스통에게 잇고 흥망은 하늘에 잇는지라 경의 말과 ㄹ흘진디 즈스와 밍지 도로혀 소진 장의만 ㄹ지 못허라 [‥] 엇지 조고마흔 티로 빅옥을 버리리오”
 〈한성신보본 5-6회〉

위의 예문과 같이 한성신보본은 송태조의 “경의 말과 ㄹ흘진디”에서 경(卿)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서사 문맥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락된 것 역시 신문사 측에서 분량 조절을 위해 무리하게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저본에서 이미 결락되었기에 미처 재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반부 서사에서 명태조가 역대 제왕의 득실을 논의하는 데, 송태조에 대한 평만 결락되어 있다.²⁷⁾ 송태조는 네 명의 창업주 중 한 명이며, 연회를 주최할 때부터 동석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인물이다.

26) 후술하겠지만, 고려대본은 이 부분 앞뒤가 통째로 결락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화사기’ 계열의 번역 대본이 된 한문본, 한중연본 〈金華寺記〉(《雲英傳》)과 합철, 1책 46면, 6a면. 趙普曰, “亮等, 未有一統之功, 未可委此任也.”)를 참고하였다.

27) 반면, 고려대본(37면. 티조는 일직 글을 빅지 못호고 ㄹ게야 글 익기를 조아호고 편박이 전폐의 ㅎ치 안코 빅옥이 공경의 밍지 아니호며 고신이 아티로 득정호여 ㄹ군익국지심으로 유연이 흥호고 덕ㅎ효제지수를 드러 예의엿치의 풍속을 ㄹ피고 통기증문호고 조급 스통이 잇서 스통이 다 보왔스니 소위 탕탕평평지도요)에는 송태조에 대한 평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꽤 길게 서술되어 있다.

더구나 여러 중흥지주와 폐업지주들의 기상은 논하면서도 유독 송태조만 결락시킨 것은 확대해석해보면 송태조에 대한 이본 과생자의 부정적 인식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금화사기’ 계열에서 송태조는 중흥지주와 폐업지주의 격서에 대해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이거나²⁸⁾ 원세조의 선전포고문을 듣고 화친을 제의하는²⁹⁾ 등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금화사기’ 계열 전체의 특징이다. 따라서 신문사 측에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송태조에 대한 평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 듯하다.

이상의 한성신보본의 세 군데 결함은 모두 저본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성신보본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같은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작품 전체의 서사를 놓고 봤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4대 창업주의 추종신 이름 나열 부분에서 조보가 빠져 있는데, 칙지를 받을 네 명의 추종신을 부르는 대목에서부터 등장하므로 명단 나열에서만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의 서사에서는 어떠한 결함도 보이지 않으며, ‘금화사기’ 계열의 서사를 충실히 보유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본은 그렇지 않다. 고려대본은 서사 초반부에 상당한 분량이 누락되어 있다. 그것은 중흥지주 초청 합의 이후부터 제갈량이 왕희지에게 방문(榜文)을 쓰게 하는 대목 이전까지인데³⁰⁾, ‘중흥지주와 군신의 등장 및 좌정-장량의 군신 포핍 제의-변개의 오색기 분별-위정의 포핍자 간택 주청-황제들의 포핍자 추천-제갈량의 선정과 겸양-진시황·진무제·수문제·초패왕의 격서 도착-제갈량의 동서루 분별 계교’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서사는 한성신보본의 경우 4회 후반부터 7회 초반부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당한 분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제갈량의 선출 장면이 누락되었을 뿐’이라고³¹⁾ 지적하였으나, 제갈량의 포핍 자격에 대한 논의가 누락 부분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후에 제갈량이 다섯

28) 한성신보본 6회. 송황이 골으되 “가는 즈를 싸로지 말며 오는 즈를 막지 말나 흐엿스니 조히 더접흠만 긋지 못하다.”

29) 한성신보본 20회. 송황이 전물하야 골으되 “호스다마하고 아람다운 괴약이 막히기 쉽다 흐미 정이 이를 일으키로다 저의로 더부러 서로 쓰호미 화친하는 니만 긋지 못하다.”

30) 고려대본 14면. 승황제 답왈 “심합여심인이다” 흐고 ∨ 왕희지를 불너 왈 크게 괴의 썩 문 맞게 세위스니

31) 김정녀, 앞의 논문, 34쪽.

가지 색깔의 깃발을 가지고 그 성격에 맞게 군신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각각의 깃발이 무엇을 상징(紅黑黃白靑-文武忠勇智)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누락 부분 속 번째의 말을³²⁾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대본은 한성신보본보다 서사 결락 수가 적기는 하지만, 1군데의 결락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서사 이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선본이라 하기 어렵다.

둘째, 한성신보본에는 한나라 무장인 이릉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고려대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이릉은 한무제의 신하로서 명성을 떨치다가 흉노에게 포위되자, 남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항복한 인물이다. 또 한무제가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의 딸과 결혼하여 흉노에게 용병술을 가르치다가 불명예스럽게 죽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황이 꾀 술을 쥘어 명하야 왈 “밧게 잇는 군신이 몇치뇨 말술과 머리 돛출 각별 스승하라” √ 무제 왈 “동방삭이 황정경을 그릇 일고 적하인간하야 진짓 선평도골이 잇는지라 전일의 과인을 덕하야 고금성현의 상당흔 벼슬을 의논하는지라 이제 저로 하야금 부직을 시기미 엇더하뇨”
 〈고려대본 47-48면〉

한황이 꾀 명하야 술을 쥘어 곁으되 “밧게 잇는 군신이 얼마나 되나뇨 말술과 싹도야지 다리를 각별이 스승하라” 서한 별장 니릉이 흉노 문밖게서 칼을 잡고 유체하며 산곡 가오되 빈회하고 도로로 이에 방황하야 홀 바를 아지 못하는지라 무제 곁으되 “동방삭이 그릇 황정경을 일고 인간에 덕하 고로 선평도골이 잇는지라 전일에 항상 과인을 덕하야 고금영웅 상당지직을 의논하엿스니 이제 삭으로 하야금 군신을 벼슬에 부치게 하미 엇더하뇨”
 〈한성신보본 18회〉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성신보본에만 ‘이릉이 문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방황한다’는 짙막한 서술이 존재한다. 정명기본과 유탉일본은 이 부분 이전에 필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화사기’ 계열의

32) 한성신보본 4회. 즉시 번째로 하야금 오식기치출(를) 가지고 남편누를 디야 세 번 불너 곁으되 “정승의 직좌 잇는 즈는 다 흥[흥]기 아리로 가고, 장수의 직좌 잇는 즈는 다 휘[휘]기 아리로 가고, 충의를 품은 선비여든 다 황기 아리로 나아가고, 용력이 잇는 선비여든 다 빅기 아리로 다라가고, 지모를 품은 선비여든 다 청기 아리로 다라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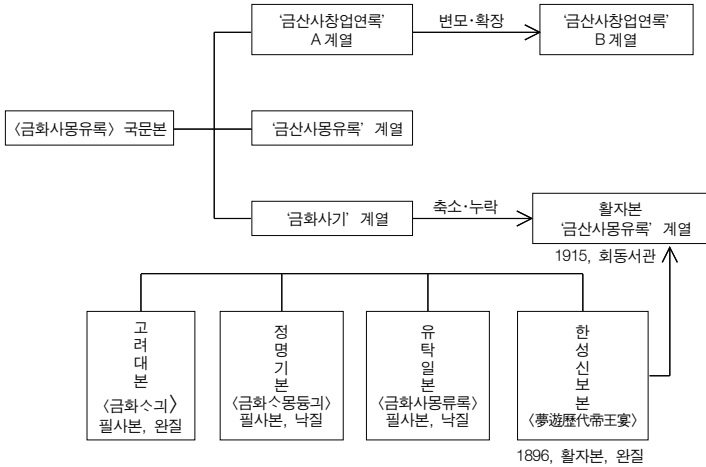


그림1- 〈금화사몽유록〉 국문본 계열

다른 이본에는 이 서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계열은 어떠한지 그림1을 보면서 살펴보자

그림1은 김정녀의 〈금화사몽유록〉 국문본 계열 분류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금산사창업연록’ 계열의 선본인 고려대본 〈금산사창업연록〉(1책 162면)과 ‘금산사몽유록’ 계열의 선본인 박순호본 〈금산사몽유록〉(2책 64면)에 이릉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활자본인 회동서관본(1915) 〈금산스몽유록〉(1책 59면)의 경우에도 ‘금화사기’ 계열의 축소판인 만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외에 한문본의 선본(善本)인 국립중앙도서관본 〈금화사몽유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려대본의 한문 대본으로 여겨지는 강남대본 계열의 한중연본 〈금화사기(金華寺記)〉 역시 위의 고려대본 예문과 마찬가지로 이릉에 관한 서술 없이 곧바로 한무제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³³⁾ 국문본 31종을 포함하여 한문본까지 일일이 고찰한 것이 아니기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성신보본에 보이는 이릉에 대한 서술은 독특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릉과 관련해서는 사마천(司馬遷)이 한무제에게 이릉을 두둔하는 말을 하다가 궁형(宮刑)을 당한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33) 한중연본 〈金華寺記〉 22a면. 漢皇即命賜酒曰, “在外君臣, 幾何? 斗卮酒及一餗, 各別賜送.” 武帝曰, “寡人之臣東方朔, 誤讀黃庭經, 謫下人間, 真有仙風道骨矣. 前日, 寡人與之, 論古今聖賢常當之職. 今使付職君臣, 何如哉?”

도 이릉에 대한 평은 부정적으로 이어져온 듯하다. 이는 〈금화사몽유록〉의 파생작으로 19세기에 창작된 〈왕회전〉에서 총 323명의 인물을 포괄하면서도 이릉은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채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³⁴⁾

오랑캐국에 정착하여 새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릉의 모습은 언뜻 보면 일본의 복속국이 되었으나 그를 수용하고 살아나가는 조선의 모습과 겹쳐진다. 곧 한성신보사가 일본에 대한 교린 논리를 이 대목을 통해 발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릉에 관한 서술이 저본이 된 한문본에 본래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한성신보사에서 자신들의 주지를 관철시키고 싶었다면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이릉을 두둔했을 것이며, 다른 대목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한성신보본에는 내용상의 별다른 개작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은 이 대목을 신문사의 주지와 연관시켜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성신보본에 보이는 이릉에 대한 서술은 역사상 이릉이 한무제에게 박하게 평가받은 것과 작품 내에서 소외되어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생각된다. 곧 저본이 된 한문본의 필자 나름의 역사의식이 투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릉이 흉노에게 항복한 이유가 선의(善意)에 있었음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부정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한성신보본에 보이는 이릉에 대한 서술은 상세하지 않기에, 빠지더라도 내용 연결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한무제가 군신의 벼슬을 임명할 신하로 동방삭을 추천하는 대목 앞에 굳이 삽입시킨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릉의 불우한 모습과 한무제에게 칭송받는 동방삭의 모습이 엇갈리도록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34) 참고로 영웅소설 〈이대봉전〉에서는 이릉이 주인공 이대봉에게 흉노를 물리칠 신물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며, 직접적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부분(완관 84장본 〈리되봉전〉 42면. 그 장수 답왈 “소장은 한장 이릉이옵던니 당년의 천자께 자원하고 군사 오천 명을 거나려 전장의 나어가 흉노의 희을 보와 속절 업시 황양지국이 되었기로 평성 적취지한이 심간의 가득하야 하소할 고시 업삽더니 마침 공자를 땀나미 너의 설원지취라 공자는 소장의 갑주를 가져다 흉노을 머여 디공을 이루고 소장의 수철 연 원혼을 위로하실가 바티노라.”)이 나타나고 있어 작가의 이릉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엿보인다. 따라서 〈금화사몽유록〉 여타 이본들에 이릉에 대한 서술이 부재하여 그에 대한 의식 표출이 배제된 것을 우리 고전소설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각 작품의 작가 혹은 이본 파생자 개개인의 역사의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성신보본은 서사 전개상 고려대본에 비해 선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 무장 이릉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면모를 지닌 이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⁵⁾

III. 연재 의도 및 이본적 가치

이 장에서는 《한성신보》라는 매체의 성격 및 당대 시대배경과 관련하여 〈몽유역대제왕연〉의 연재 의도와 이본적 가치를 구명해보도록 하겠다.

〈금화사몽유록〉 이본들은 대체로 제목에 ‘금화사’ 혹은 ‘금산사’가 들어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제왕연회기(帝王宴會記)〉나 〈부용당〉, 〈성생전(成生傳)〉³⁶⁾ 등 독특한 표제 혹은 내제가 붙은 이본이 있기는 하지만, ‘몽유역대제왕연(夢遊歷代帝王宴)’이라는 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몽유역대제왕연〉이 이와 같이 매우 이질적인 제명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한성신보사 측의 의도적인 변개에 기인한다.³⁷⁾ 근대 출판물 및 한성신보사의 연재 방침에 어울리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새로 작명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는 ‘몽유록’이라는 제명 방식이 소설이라는 문예물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역사물을 표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이 작품을 선택하여 연재한 의도와도 연결된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목과 달리 내용상의 변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만일 한성신보사 측에서 저본을 토대로 재창작

35) 이 외에도 작품의 종결부에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고려대본(53-54면)은 원태조(칭기즈칸, 1대 왕)인 데 비해, 한성신보본(20회)은 원세조(쿠빌라이, 5대 왕)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한성신보본이 원태조와 원세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구분이나 의미 부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명·지명과 같은 세부적인 설정에서 계열 간 공유하기도 하는 〈금화사몽유록〉 국문본의 일반적 특징을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원태조이건 원세조이건 모두 창업지주의 연회를 방해하는 훼방꾼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36) 김정녀, 앞의 책, 117쪽.

37) 《한성신보》의 여타 한글 서사물의 제명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신문사 측의 의도하에 새로 작명된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 〈이춘풍전〉과 이본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男蠡女傑〉(1896. 9. 28-10. 22)도 〈이춘풍전〉의 이본 제명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남자 벌레와 여자 호걸’이라는 상징적인 제명을 신문사 측에서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번역물을 제외한 한글 서사물의 제명은 대부분 한성신보사에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혹은 개작하였다면 새로운 창작 의식 및 개작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작품에는 전혀 그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몽유역대제왕연〉은 제목을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작품 구성 면에서 어떠한 각색도 가하지 않은 〈금화사몽유록〉의 순수 이본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금화사몽유록〉은 중화사상 및 승명배척 의식이 짙은 작품이다. 반면 《한성신보》는 일본의 기관지인 만큼 친일적 성격이 농후한 매체이며,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을 마친 후 조선인들의 사상 속에 뿌리박혀 있던 중국에 대한 사대정신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역대 제왕들의 치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연재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이 작품의 이본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한성신보사의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몽유역대제왕연〉이 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성신보》는 창간 당시에는 100여 명의 독자에서 출발하였으나, 〈몽유역대제왕연〉이 연재되던 1896년에는 총 독자 수가 1,911명까지 증가할³⁸⁾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였다. 그 바탕에는 조선 독자의 구미를 끌 만한 소재 및 기호에 적합한 작품들이 큰 몫을 담당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조부인전(趙婦人傳)〉(1896. 5. 19-7. 10)과 〈곽어사전(郭御使傳)〉(1896. 9. 6-10. 28)을 들 수 있다. 〈조부인전〉은 신문사의 이미지 쇄신 및 독자 유입을 위하여 한성신보사에서 내놓은 고전소설 투식의 작품으로서, 여러 독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³⁹⁾ 또 〈곽어사전〉은 일본에 대한 교린을 유도하는 외교적 제스처가 일정 부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선 독자들이 익숙한 영웅소설의 형식에 야담을 결합한 창작물이었기에 2종의 개인 소장 필사본이 전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반면, 문답체 형식인 〈신진사문답기(申進士問答記)〉(1896. 7. 12-8. 27)는 일본을 옹호하는 노골적인 내용으로 인해 독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서둘러 연재를 종료하기도 하였다.⁴⁰⁾

38) 《한성신보》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배포되었으며, 우편을 통해 일본으로도 우송되었다. 김영민, 앞의 책, 21쪽.

39) 《한성신보》, 1896년 7월 10일자. 오래도록 도부인전을 올려 購讀諸君之囑采^한시어를 언더선 本筆者가 고맙게 알고 이를 감풀 말이 업섯는^한터

40) 김준형, 앞의 논문(2015b), 81-82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몽유역대제왕연〉은 이미 많은 향유자와 인기도를 보유한 고전소설 〈금화사몽유록〉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담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문사의 의도에 맞게 이 작품은 두 달에 걸쳐 무려 20회 동안 연재되었으며, 독자들에게 읽혔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인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몽유역대제왕연〉의 연재는 내국인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의 수단이자, 친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랑캐’로 인식되던 청나라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일본의 힘에 휘둘리고 있는 조선의 비극을 실감함으로써, 소설 내용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실을 인식케 하기 위한 의도에서 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사 측에서 단지 내국인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작품을 수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성신보사에서 〈몽유역대제왕연〉을 연재한 이유를 친일지의 성격과 관련하여 굳이 추측해보자면 조선인들이 그리워하는 중국의 찬란했던 시절은 모두 지나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외세와 협력해야만 하는 현재의 처지를 깨닫도록 하고자 한 의도로 읽어낼 수 있다. 곧 이 작품의 연재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현실을 각성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종식 이후 일본은 대만 등 청나라의 영토를 식민지로 확보하였고, 청나라에게서 상당한 양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반면, 청나라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과 청의 거리는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중간에 일본이 있는 한 청나라와 조선의 거리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이전인 1896년에는 아직까지 숭명배청 의식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인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신보사는 〈몽유역대제왕연〉의 연재를 통해 일본이야말로 조선인들이 배척하고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청나라를 이긴 나라라는 사실을 주입시키고, 조선을 대신하여 그러한 청나라를 물리쳐줬다는 우월 의식을 이면에 표출하였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는 중국을 사대하기보다 일본으로의 사대로 옮겨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성신보시는 이 작품을 몽유록이라는 소설 양식의 문예물 혹은 오락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역사물로서 더 크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화사기’ 계열이 ‘금산사창업연록’ 계열에 비해 한족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짙다는 점과 연결되며⁴¹⁾, ‘금화사기’ 계열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의식을 한성신보사 측에서 용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곧 한성신보사가 ‘금화사기’ 계열이 지닌 한족 정통의 역사의식을 역이용함으로써 굳이 내용의 개작 없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형은 신문사의 주지를 투입시키는 목적성을 갖는 1면과 오락성을 중심으로 한 2면의 고정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몽유역대제왕연〉이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고전소설 연재의 구색을 맞추었다고⁴²⁾ 지적하였다. 이 작품의 연재 목적이 오락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몽유역대제왕연〉보다 앞서 연재된 〈남준여결(男蠶女傑)〉(1896. 9. 28-10. 22)⁴³⁾ 역시 1면과 2면을 오갔던 것으로 보아 1면과 2면의 성격은 고정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2면이 오락성에 중심을 두었다 해도 신문사의 주지는 어떤 식으로든 투영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내부적으로 고종과 정치권력의 암투로 인해 왕실이 통치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열강세력의 틈입으로 인해 조선 왕조의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 말의 혼란한 시대 상황과 대비해볼 때, 중국의 4대 창업지주를 비롯한 특출난 신하들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몽유역대제왕연〉 속의 군신과 같은 위정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한-당-송-명으로 이어지는 중국 역사의 정통론과 명나라가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41) 김정녀, 앞의 논문, 55쪽.

42) 김준형, 앞의 논문(2015b), 89쪽.

43) 김준형(앞의 논문, 2014, 34쪽; 위의 논문, 87쪽)은 〈이춘풍전〉의 최초 필사 기록이 1905년이라는 것을 근거로 〈남준여결〉이 가장 이른 시기의 〈이춘풍전〉 텍스트이며 원전일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김준형도 인정했듯이 〈이춘풍전〉의 최초 필사 기록은 20세기 초(1905)일지라도 창작 시기는 〈남준여결〉이 연재된 1896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필자는 〈몽유역대제왕연〉이 기존의 고전소설을 원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남준여결〉 역시 당시 향유되던 고전소설 〈이춘풍전〉을 원전으로 삼아 약간의 개작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이춘풍전〉의 모든 이본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는 결말부를 통해 옛 중국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는 동안이나마 위안을 삼았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 왕조의 기업을 이어가던 과거의 모습을 추억하였을 수도 있다. 곧 조선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국 및 중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유효했기에 ‘중국 역사서의 집결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철저히 간파한 한성신보사는 <금화사몽유록>의 또 다른 이본을 파생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을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지도(指導)하고자 한 목적을 실현시킨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성신보본이 갖는 이본적 가치를 정립하자면, 가장 이른 시기의 활자본으로 알려진 회동서관본(1915)보다 무려 19년이나 앞서 출현한 최초의 활자본이라는 데 일차적 의의를 둘 수 있다. II장 2절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금화사기’ 계열은 축소·누락을 거쳐 활자본 ‘금산사몽유록’ 계열로 발전했다. ‘금산사몽유록’ 계열의 활자본은 소장처가 불분명한 3종을 제외하면 총 3종(1915년 회동서관본, 1925년 회동서관본, 1952년 세창서관본)이 존재하며, 이 세 이본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⁴⁴⁾ 이에 따라 1915년 회동서관본과 한성신보본을 비교해보니, 회동서관본에 후반부 군신들의 가무가 5명 추가되었다는 것과 원태조의 선전포고문의 내용이 부연되었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서사가 모두 일치하였다. 다만 회동서관본은 후대 활자본인 만큼 축소·누락이 빈번하고, 송태조가 화친을 청하는 내용이 다소 순화되는 정도로 변개되었다. 그렇다면 한성신보본은 비교적 후대로 밀려나게 된 20세기 초 활자본보다 축약이나 결락 정도가 덜하고, ‘금화사기’ 계열의 원본 서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초창기 활자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일지인 《한성신보》에 내용상의 각색 혹은 신문사의 주지 투입 없이 연재된 중국 배경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총 39편의 《한성신보》 서사물 중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은 <조부인전>과 <몽유역대제왕연>뿐이다. 그런데 <조부인전>의 경우 배경이 청나라 도광 연간이긴 하지만 실제 청나라와는 무관한 허구적 배경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여성 자강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기에 친일 의식까지는 아니라

44) 김정녀, 앞의 논문, 42쪽.

하더라도 신문사의 주지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몽유역대제왕연〉은 일본이 허용한 유일한 중국 배경 작품이자 신문사의 내용 개작이 배제된 〈금화사몽유록〉의 순수 이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몽유역대제왕연〉은 전대 고전소설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 시켜주고 있다. 상술했듯이 한성신보사는 조선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금화사몽유록〉이라는 소설이 담지하고 있는 승명배척 의식을 역이용하여 ‘일본으로의 사대주의 이전과 계승’이라는 연재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고전소설 〈금화사몽유록〉의 파급력과 대중성이 상당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성신보사는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한 작품을 굳이 개작함으로써 신문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을 고려한 듯하다. 그렇기에 연재 목적 면에서의 효과에만 만족하고 그친 것이다. 물론 우리 고전소설을 언론 침탈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일제강점기 이전에 고전소설이 친일지에 서도 애독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IV. 맺음말

〈몽유역대제왕연〉은 19세기 말 《한성신보》에 연재된 몽유록 형식의 고전소설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이 〈금화사몽유록〉의 이본으로서 갖는 특징을 밝히고, 연재 의도 및 이본적 가치를 고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성신보본 〈몽유역대제왕연〉은 〈금화사몽유록〉의 31종 국문본 중에서도 ‘금화사기’ 계열에 속하는 이본이다. 그리고 한성신보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고려대본 〈금화스기〉는 서로 다른 한문본을 저본으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고 두 이본을 비교해봤을 때, 한성신보본은 고려대본보다 한글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오자가 최소화된 이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고려대본과 같이 치명적인 서사 결락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본이라 할 수 있으며, 한나라 무장 이릉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한성신보사는 이 작품의 제명을 역사물처럼 변경하는 한편, 내용상의 각색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대중성이 확보된 전대소설을

택하여 내국인 독자 유입을 표면적 연재 목적으로 삼고, 현실 각성과 일본으로의 시대 이전 추구를 심층적 연재 목적으로 삼았다. 그럼으로써 내용상의 개작 없이도 신문사의 의도를 조선 독자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몽유역대제왕연>은 1915년에 발행된 회동서관보다 무려 19년이나 앞서 출간된 최초의 활자본이라는 점, 내용상 신문사의 의식이 전혀 투영되지 않은 <금화사몽유록>의 순수 이본이라는 점, 조선인들에게 인기 있던 고전소설을 양면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성신보본 <몽유역대제왕연>을 <금화사몽유록>의 새로운 이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금화사몽유록>은 총 32종의 국문본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화사몽유록>의 더 많은 이본이 향유되었을 가능성까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금산사몽유록〉(박순호 소장본).
〈금산스몽유록〉(회동서관본, 1915).
〈금산사창업연녹〉(고려대학교 소장본).
〈금화스기〉(고려대학교 소장본).
〈金華寺記〉(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金花寺夢遊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리티봉전〉(완판 84장본).
〈漢城新報〉(연세대학교 소장본).

2. 논저

- 강현조, 「근대초기신문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한성신보』와 『제국신문』의 공통 게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권영민, 「『한성신보』와 최초의 신문 연재소설」. 『문학사상』 26, 문학사상사, 1997.
- 권우행, 『〈금산사기〉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영민,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_____,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2, 소명출판, 2008.
- 김재영, 「근대계몽기 소설 개념의 변화-두 가지 외래적 원천」. 『현대문학의 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김정녀, 『조선 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서, 2005.
- _____, 「〈金華寺夢遊錄〉 국문본의 유통 양상과 수용 층위」. 『우리文學研究』 48, 우리문화회, 2013.
- 김준형,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한성신보』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 _____, 「근대전환기 야담을 보는 시각-『한성신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a.
- _____, 「『한성신보』 수재 고전소설의 실상과 향유 양상」.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b.
-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전개(傳系) 서사물의 역사적 성격」.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 _____, 「『한성신보』 소재 야담계 기사(記事)의 서술 시각과 인물 형상」. 『우리文學研究』 38, 우리문화회, 2013.

-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용규, 「구한말 일본의 침략적 언론활동-《한성신보》(1895-1906)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43, 한국언론학회, 1998.
-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7.
- 임치균, 「『王會傳』 연구」.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정용수, 「『金山寺夢遊錄』 계의 창작배경과 주제의식」. 『고소설 연구』 10, 한국고소설학회, 2000.
-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 채백,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7,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0.
- 최준, 「한성신보의 사명과 그 역할-일본외무성의 기관지의 선구」. 『관훈저널』, 관훈클럽, 1961.
- 한원영, 「한국 개화기 신문 한성신보에 연재된 소설고」.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7.

국 문 요 약

〈몽유역대제왕연(夢遊歷代帝王宴)〉은 1896년 친일 기관지인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연재된 활자본 고전소설로, 〈금화사몽유록〉의 이본이다. 이 작품은 고려대본 〈금화스기〉보다 한글 번역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오자(誤字)가 최소화되어 있다. 또 서사 결락이 적은 선본(善本)이며, 한나라 무장 이릉(李陵)에 대한 서술이 첨가되어 있는 독특한 이본이다.

한성신보사에서 이 작품을 연재한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대중적 인기가 담보된 고전소설을 개작 없이 연재함으로써 내국인 독자를 유입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일본으로의 사대주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몽유역대제왕연〉은 19세기 말 친일지에 실린 중국 배경의 고전소설이자, 〈금화사몽유록〉의 최초 활자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6. 3. 19.

심사일 2016. 4. 23.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몽유역대제왕연〉(*Mongyuyeokdaejewangyeon*), 〈금화사몽유록〉(*Geumhwasamongyurok*), 숭명배척(respecting Ming and rejecting Qing), 《한성신보》(*Hanseongsinbo*), 친일지(pro-Japanese bulletin)

Abstracts

A Study on *Mongyuyeokdaejewangyeon*(夢遊歷代帝王宴) Serialized in Hanseongsinbo: Focusing on Its Characteristics as a Different Version
Lee, Hu-nam

Mongyuyeokdaejewangyeon(夢遊歷代帝王宴) is a type-printed version of an ancient novel serialized in *Hanseongsinbo*(漢城新報), a pro-Japanese bulletin, in 1896, and it is a different version of *Geumhwasamongyurok*. This work was translated into Korean more thoroughly than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Geumhwasagwi*, and typos were minimized. In addition, it is the best version (善本) with few errata and omissions, and is a unique version in that a description on Lee Reung(李陵), the warlord of the Han Dynasty, was added.

The ostensible purpose that *Hanseongsinbo* serialized this novel was to attract domestic readers by carrying the highly popular ancient novel without modification. However, its hidden intension was to promote the redirection of toadyism toward Japan. Accordingly, the value of *Mongyuyeokdaejewangyeon* should be reestablished not only as an ancient novel with China as its background serialized in a pro-Japanese bulletin in the late 19th century but also as the first type-printed version of *Geumhwasamongyurok*.